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의 개발과 지역성에 관한 연구*

이재복** · 안재섭***

A Study on a Regional Development and Identity of *Naepo* New Town in *Chungcheongnam-do**

Jaebok Lee** · Jaeseob Ahn***

요약 : 본 연구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건설된 내포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는 내포신도시로 지정되었고, 충청남도의 주요 행정기관과 거주시설 등이 건설되며 개발되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개발은 신도시개발 이전에 지역이 가지고 있던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가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포신도시 개발지역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도시개발로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구와 수운 교통의 발달로 외부와 활발한 연계를 통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나타나는 지역, 둘째, 산, 바다, 구릉이 골고루 분포하는 정주 여건이 뛰어난 지역, 셋째, 농업지역 경관에서 도시지역 경관으로 빠르게 변화한 도시, 넷째, 행정서비스업 및 첨단산업이 발전함과 동시에 주변에 농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도농통합의 지역이다. 각각의 정체성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정체성이라기보다 서로 연계되는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체성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내포신도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경관에 반영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내포신도시, 지역 정체성, 도청 이전, 신도시개발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identity of *Naepo* New Town in *Chungcheongnam-do*. In 2006, *Hongbuk-eup* in *Hongseong-gun* and *Sapgyo-eup* in *Yesan-gun* were designated as *Naepo* New Town, and maj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were moved and constructed into the new town. The development of the new town for the relocation of *Chu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s problems of damaging and/or obscuring the regional identities of the region. So, this study tried to uncover the regional identities of *Naepo* New Town. According to the analysis, four regional identities were found in *Naepo* New Town: A region where openness and diversity through active links with the outside world (Cultural & Historical Identity), A region with excellent settlement conditions with a balanced distribution of mountains, sea, and hills (Geographic Identity), A region rapidly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al landscape to an urban landscape (Landscape Identity), A region of urban and rural integration where agriculture still exists in the vicinity of the new town and, simultaneously, administrative services and high-tech industries are developed in the new town (Industrial Identity). These four regional identities are expected to complement each other and establish a major identity of *Naepo* New Town.

Key Words : *Naepo* New Town, Regional identity,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facilities, New Town development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서울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The work was supported by Dongguk University's Seoul Research Fund of 2020).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s Seoul, s383838@naver.com)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 Seoul, jsa@dongguk.edu)

I. 서론

도청(道廳)은 도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행정 기관으로, 관내(管內)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에 도청이 지역주민과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청의 입지라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1896년 칙령 제36호로 행정구역 체계가 13도제(道制)로 개편되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분리되었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의 충청감영이 충남관찰부로 전환되어 도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1932년 한반도 철도가 대전을 중심으로 건설되면서 충남도청은 철도교통이 발달한 중심지역인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남도청은 관내지역이 아닌,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대전시직할시에 남아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충남도청은 20년이 넘도록 대전광역시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 도민들의 도청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자치행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김교남, 2014). 이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2006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읍 일원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2년 충남도청은 새롭게 건설된 내포(內浦)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충남도청 이전 사업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자족적 신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4만 호의 택지를 포함한 업무용지, 산업용지, 상업시설용지가 개발되어 신도시의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청 이전은 도청 입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최적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수용문제 등의 비용 측면의 단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의 지리·역사적 정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김교남, 2014). 충남도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발간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에 “역사·문화를 계승한 도시적 맥락 형성”(충청남도, 2015:3)이라는 문구로 지역성을 계승한 신도시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2020년 내포신도시 건설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역사·지리적 정체성의 결여를 방지 및 신도시 개발계획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을 인지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사례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 대상지의 개발과정과 지역 정체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청 이전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내포지역의 지역성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신도시 개발 및 지역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1. 신도시 개발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건설된다. 현대의 신도시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의 낙후된 정주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E. Howard(1898)의 전원도시운동(田園都市運動)에서 정립되었다(정환용, 2006). 신도시는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낙후, 과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도시 인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역으로, 모도시(母都市)의 주거, 산업 등 일부 기능을 분담하거나, 모도시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된 자족도시의 형태를 갖춘다(김형선, 2008). 신도시는 정책적 목표 및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그 입지를 선정하고, 신도시의 기능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성지진,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100만 평(약 3.3km²) 이상의 개발지를 신도시라고 지칭하고 있다(배순석 등, 2000).

한국에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60년대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배후도시 개발과 국토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였다(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1970년대 정부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업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업도시를 건설하였고, 1980년대는 대규모 수도권 택지개발을 위해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균등발전을 목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표 1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유형 및 사례 지역을

표 1. 신도시 개발 유형 및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사례 지역

신도시 기능 및 개발 목적에 따른 유형	개발 사례 지역
산업기능 담당형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여천, 평양, 안산(반월) 등
주택 공급형	과천, 성남,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위례, 판교, 동탄, 운정, 광교, 양주, 고덕, 검단,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등
특수형	세종, 계룡, 남악, 내포 등

* 국토연구원, 2004:2를 재구성.

나타낸 것으로, 신도시 개발 유형을 크게 산업기능 담당형, 주택 공급형, 특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기능 담당형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입해지역에 건설된 산업기지도시로, 우리나라에서 건설된 현대적 의미의 최초 신도시로 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주택 공급형 신도시는 대도시의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건설된 신도시로, 서울 인접 지역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주택 공급형 신도시는 계획·건설되고 있다. 특수형 신도시 개발은 특수한 목적 및 정책에 따라 형성되는 신도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 사례는 중앙행정기능 분산을 위해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 이전을 위해 건설된 남악신도시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내포신도시 역시 충남도청 이전을 위해 건설된 특수형 신도시 개발 유형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세워진 목적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지역 간 개발격차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개발지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 및 정체성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설기환 등, 2016).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경관 및 지역성 훼손 문제는 본래 가지고 있던 지역적 특색이 사라지거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김교남, 2014).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계획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연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발굴 및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을 통해 지역의 지리·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지역 정체성

그렇다면 지역의 지리·역사적 특색을 담고 있는 지

역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선, 정체성(正體性)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배타적 고유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정체성은 집단적 관점에서 하나의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별적 관점에서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원희, 2016; 성혜진, 2017). 정체성의 개념을 지역이나 도시에 투영하면 도시 정체성 혹은 지역 정체성이 된다.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구성/재구성하며 확립해나간다(최원희, 2016; 2017). 즉, 지역 정체성은 지역적 공간 단위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는 그 지역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며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철희 등, 2012; 조일환, 2013). 지역 정체성과 관련하여 조명래(1996)는 지역을 하나의 집단적 범주로 하여 타 지역의 정체성과 대비되고 경쟁하면서 지역 정체성이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임병조(2009a; 2010)는 지역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지역 내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지닌 정신적, 행동적 요소까지 모두 망라하여 지역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민(1999)은 지역 정체성이 각 지역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성격이라 정의내릴 수 있지만, 공간적, 경관적 차별성에만 집중하여 지역 정체성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표현되어 지역사회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욕식 제고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정립과 도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이재필, 2016).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 정체성을 정립

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마케팅 및 브랜드화에 활용하고 있다(성혜진, 2017). 그 사례로, 충청남북도는 충청도를 상징하는 청풍명월(淸風明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충청도를 깨끗함, 선비정신이 깃든 지역으로 정체성을 도출해냈다(김규원 등, 2011). 충청남도는 백제역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뿌리인 ‘백제정신’을 활용하여 섬세함, 온화함, 진취성 등으로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세계일보, 2009년 11월 24일자).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의 역사와 전통을 4대 정신(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집약하여 경상북도만의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여 확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정체성은 단순히 지역의 지리·역사·문화적 정신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개발계획에 활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 정체성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재필(2016)에 따르면, 4가지 접근방식으로 지역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 유적 등으로 도출되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둘째, 지역주민의 기질과 도시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미지 정체성’, 셋째, 지역의 자연, 경관, 건축, 공간구조 등으로 비롯되는 ‘경관적 정체성’, 넷째, 지역 산업 및 경제활동으로 도출되는 ‘산업적 정체성’이다. 이 4가지 접근방식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상호 연계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도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화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계기석·천현숙(2001)은 도시 정체성 확립은 여러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보면서, 도시를 기준으로 해당 도시에서 발생한 사실에 기반하여 지리적, 환경적 요소로부터 지역주민의 의식과 부합되는 분야를 선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도시정체성 확립 분야를 ‘역사정체성’, ‘문화정체성’, ‘경관정체성’, ‘산업정체성’으로 나눠 해당 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계기석·천현숙,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재필(2016), 계기석·천현숙(2001)의 연구를 토대로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에 접근하는 4가지 방법을 그림 1과 같이 선정하였다. 내포신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내포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 현장, 민속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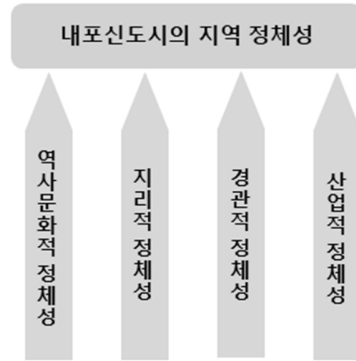


그림 1. 내포신도시 지역 정체성 정립을 위한 4가지 접근방식

리적 정체성은 내포지역의 자연지리 및 풍수지리적 특성을 통해 도출한다. 경관적 정체성은 신도시 개발 전후의 물리적 경관변화를 토대로 제시하며, 산업적 정체성은 농업중심에서 행정·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도출한다.

III. 내포신도시 개발을 통한 충남도청의 이전

충남도청 이전으로 건설되는 내포신도시시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총면적 9,951,729.1㎡로 건설되고 있다. 2006년 현 위치로의 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2010년 신도시 명칭이 내포로 확정 지어졌다.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은 내포 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으며(정공철, 2018), 특히 환황해권 시대의 선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포신도시시는 약 4만 호의 가구로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충청남도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IT·BT 및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기능까지 자족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 구축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오용준, 2013). 현재 내포신도시시는 2020년 말 신도시 건설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충남도청 및 도의회, 충남청남도 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하였으며, 약 1만 호의 주택 및 거주 기반시설이 건설 완료되어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1. 내포신도시 개발 목적

내포신도시의 개발 목적은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이경주·임준홍, 2014; 충청남도, 2019). 충청남도는 거점도시가 북서부에 치우쳐 있고, 도청이 충남 남서부 관외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불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역 간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도청의 주요 이전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관내 지역으로 청사를 옮기고 관할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도청을 입지시켜 도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정순오, 2013).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여전히 충남도청은 관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할지역 밖에서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미적으로 퇴색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남동쪽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치우쳐 접근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도민의 도정참여기회가 제한되었다(오용준·윤갑식, 2013).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리적 중심지로 도청을 이전하여 도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및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도정을 수행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청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도내 낙후지역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북서지역은 도내 수위도시인 천안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하였고, 서해안 지역인 보령시, 태안군 일대는 관광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 서

부내륙 지역은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가 제한되고, 산업기능이 미비한 탓에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손순금, 2007; 임준홍, 2014).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충남 서부내륙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에 이르는 곳에 충남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 산업시설,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충남도청 이전은 내포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해 청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획·추진되었고, 2020년 말 신도시 개발사업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 내포신도시 개발 후 지리적 변화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2012년 이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2년부터 내포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림 2는 내포신도시가 입지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주민등록 인구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내포신도시 개발 직전 두 지역의 합계 인구는 약 500명에 불과하였지만, 도청 이전 이후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개발이 완료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로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예산군 삽교읍 목리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두 지역 모두 신도시 출범 이전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홍북읍과 삽교읍의 산업변화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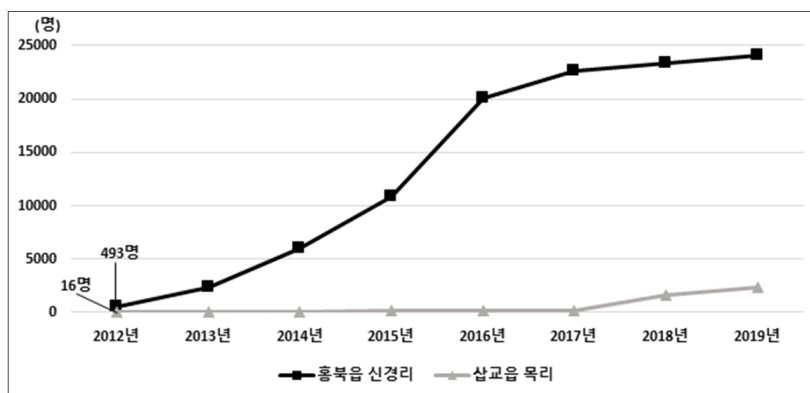


그림 2. 내포신도시 지역(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의 인구 변화

*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그래프로 구성.

표 2. 내포신도시 연도별 지역 산업 종사자 수 변화

(단위: 명)

지역	산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홍성군	농업, 임업 및 어업	14	26	-	28	32	31	404
홍북읍	서비스업	143	1,933	-	2,465	2,749	3,058	3,459
예산군	농업, 임업 및 어업	12	16	16	16	-	12	9
삽교읍	서비스업	303	337	322	422	-	1,037	980

* 예산군 통계연보: 홍성군 통계연보의 해당 연도별 자료를 표로 구성.

**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만을 고려하였으며, 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총합으로 종사자 수를 표시.

서비스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표 2는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의 산업변화를 나타낸 자료로, 내포신도시 건설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변화를 보여준다. 두 지역 모두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특히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2012년 이후 홍성군 홍북읍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6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산군 삽교읍의 경우 현재 건설중이기 때문에 홍북읍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완료 후 서비스업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가 입지한 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 신도시로서의 성격을 갖춰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포신도시에 교육, 산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내포신도시 개발과 지역 정체성 제고 및 활용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청 이전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지역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이던 이 지역을 도시경관이 뚜렷한 신도시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적 특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경관과 정체성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내포신도시 지역이 가지고 있던 지리·역사적 맥락과 특색이 훼손되거나, 신도시로서의 특색에 가려져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개발 배경 및 목표에서 충남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지역 정체성이 나타나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향은 내포신도시 건설의 특성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표 3과 같이 8가지 특성화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내포신도시 건설 특성화 계획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청이전으로 현대 도시가 지향하는 저탄소·녹색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고, 행정기능이 특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이 보장받는 신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디자인도시' 요소와 '창조도시' 요소에서 지역 정체성과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포신도시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정체성 및 역사성에 기초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며, 행정타운, 테마광장, 문화·역사공원을 조성해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창조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충청남도, 2015). 즉, 충청남도는 내포지역의 지리·역사적 전통으로 도출한 지역 정체성을 활용하여 내포신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한 물리적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포신도시의 특성화 요소가 지향하는 지역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충청남도(2015)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개발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8가지 특성화 요소에서도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명시되어있어, 내포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에 기초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지역 정체성을 도출 및 분석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내포신도시의 경우 모도시가 없는 신도시로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될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

표 3. 내포신도시 건설의 특성화 요소

특성화 요소		내용
Eco-Green City	Green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 조성 ■ 오지(五指)축 공원·녹지 조성 ■ 도시속 녹지숲 조성
	신재생에너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저감·흡수 도시 ■ 탄소중립도시 ■ 에너지 절약형 청사 조성
	자전거천국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통형 및 레저형 자전거 도로 건설 ■ 자전거도로 부대시설 건설
Human-City	5無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주, 육교, 쓰레기, 담장, 입식광고판 없는 도시
	공공디자인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이미지 형성 ■ 공공시설물 연출
	창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도시 건설
	교육특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 에듀타운 ■ Complex Campus 조성
	안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에도시 조성 ■ U-City 구축 ■ 방재예방

* 충청남도(2015-111-128)의 내용을 표로 정리.

을 찾아내고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내포신도시 특성화 요소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포지역의 정체성을 지역의 지리·역사적 특성과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특성으로 도출하여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 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IV.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

내포신도시에서 내포의 의미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부분’을 의미한다. 의미상으로 내포에 해당하는 지역은 한반도 서해안에 다수 분포하고 있어 내포라는 명칭 자체는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포라는 명칭이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을 특정지어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철희 등, 2013). 내포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왕조실록」과 「택리지」에서 공통으로 충청도 서북부 지역을 내포로 일컬으며 차령산맥 서쪽 일대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내포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임병조, 2009a; 박철희, 2014). 내포지역이 아우르는 영역은 그림 3과 같이 현재

내포신도시 개발지역보다 광범위하고, 일제강점기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내포지역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지역으로서의 내포라는 의미는 축소되었다(임병조, 2009b).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계획 수립 이후 내포지역은 신도시 개발지역 일대로 그 영역이 한정되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충남 서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으로 축소되어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거 충청남도 서북부를 아우르는 내포지역이,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내포신도시가 함의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새롭게 등장하였는가? 본 연구는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인식되어 온 광범위한 내포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포신도시 개발 지역을 포함한 내포지역까지 지리적 범위로 설정하여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1. 역사·문화적 정체성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여 나타난다. 특히, 현재 내포신도시보다 광범위한



그림 3. 「대동여지도」 중 내포지역의 영역

출처 : 박철희, 2014:5.

지역을 아우르던 내포지역은 육지 깊숙이 항구가 발달할 수 있었고 서해안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외부 문물이 들어오기에 유리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철희 등, 2013; 박철희, 2014; 설기환 등, 2016). 따라서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다양성, 개방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가 서해를 통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선진문물과 새로운 종교를 포용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지역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백제시대 도침(道琛, ?-661)은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예산 수덕사(修德寺)에서 수행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고려 초기 승려인 탄문(坦文, 900-975)은 974년 국사(國師)가 되어 가야산의 보원사에서 입적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 후기 성리학자 백이정(白頤正, 1247-1323)은 내포지역에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더불어 내포지역은 천주교도들을 많이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은 예산군에 우리나라 두 번째 천주 신앙 공동체인 여사울 천주 신앙공동체를 설립하였고,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2-1846)은 당진군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된 인물이다.

이처럼 내포지역은 종교뿐만 아니라 선진 사상을 받아들이고 전파한 인물들의 근거지로 역할을 하며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지역적 특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내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 사상적 경관이 월등히 많이 분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성지, 성인의 탄생지, 초기 전파지역 등 문화·역사적 상징성이 두드러진 요소들이 많이 있으며(임병조, 2009c), 이는 내포지역의 지역 정체성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포지역의 다양성, 개방성에 근거한 지역 특성은 이 지역

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바닷길을 통해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적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계승하여 내포지역이 교류, 협력적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정체성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 정체성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포신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하여 내포신도시의 장기적 비전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리적 정체성

지리적 정체성은 지역의 자연, 인문지리적 특성을 통해 그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지리적 정체성을 내포지역의 자연지리적, 풍수지리적 특성에 집중하여 밝히고자 한다. 내포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징은 해만(海灣)이라는 요소로 볼 수 있다(전중환, 2003). 이는 바다와 인접해있으면서 개간이 가능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대규모 경지화가 이루어져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 대폭 늘어나 토지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포지역 중 내포신도시 개발지역은 남쪽의 오서산과 북쪽의 용봉산이 자리 잡은 비교적 평탄한 구릉지로, 대체로 경사도가 완만하여 농경지로 활용하기에 좋고,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바다, 산, 구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이 지역은 조선 후기 이종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도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여 리쯤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도 바닷가 고을과 큰 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쪽은 큰 들판이고, 남쪽은 오서산에 가려져 있는데, 가야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산줄기이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 고을을 내포라 한다.

(이익성 역, 2006:97-98)

이러한 내포의 자연지리적 특징과 택리지에서 인식한 내용을 통해 내포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고, 산과 평야가 있는 지역으로 정주 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포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 정체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포지역이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풍수지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2007)에 따르면, 내포지역 중 내포신도시 개발지역의 용봉산을 중심으로 물길(금마천)이 궁수(弓水)로 감아 돌아가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으로 명당(明堂)과 길지(吉地)이며 바닷가의 명당인 포구를 이룬 지역이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감고 흐르는 금마천은 수세(水勢)가 힘이 있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아 사람 살기 적합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내포신도시는 산과 물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주 여건이 탁월한 지역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도시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포의 지리적 정체성이 반영된 신도시로 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적 정체성

내포지역의 문화·역사적 정체성, 지리적 정체성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개발지역은 신도시 개발 이후 물리적 경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정체성은 내포지역의 광범위한 과거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경관적 정체성은 내포신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관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신도시 개발지역인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삼곡읍은 신도시 개발 전 전형적인 농촌으로서의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도시 부지 조성사업 완료를 앞둔 현재 도시로서의 경관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경관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내포신도시의 개발 전·후 항공사진으로, 2008년의 개발 예정지(용봉산 동쪽)의 항공사진을 보면, 전답(田畷)과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8년의 항공사진은 용봉산 동쪽에 충남도청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도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내포신도시는 농촌 지역으로의 물리적 경관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물리적 경관으로 변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충남도청 남쪽으로는 주거지역 개발은 약 95% 완료되었으며, 이후 대학 및 산업시설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



그림 4. 내포신도시 항공사진(2008년)

출처 : 카카오맵.

는 도시적 경관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내포지역이 미개발지에서 개발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전형적인 농촌 경관에서 도시경관으로의 변화는 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지역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어 정체성이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의 변화과정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신도시 개발사업의 8가지 특성화 요소에 새로운 지역 정체성(도시 경관적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도시가 확장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산업적 정체성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은 농업지역으로 홍성군은 전체 면적의 40%, 예산군은 약 50%가 농림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있다(충청남도, 2019). 그러므로 신도시 건설 전 내포지역의 산업적 정체성은 농업 중심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충남도청이 이전한 2012년 이후 내포지역의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두 지역의 산업통계에 따르면, 홍성



그림 5. 내포신도시 항공사진(2018년)

출처 : 카카오맵.

군 홍북읍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예산군 삽교읍 역시 동일 기간 약 3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내포지역은 농촌 중심의 지역에서 행정서비스업 중심지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현재 내포신도시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새로운 산업적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서해안 대기환경 오염 개선 및 환경관리 거점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또 다른 산업적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충청남도, 2019). 현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적 정체성에 더해 첨단산업의 입지는 미래에 새롭게 부여될 산업적 정체성이 될 것이며, 결국, 내포신도시는 행정 서비스와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으로서의 또 다른 산업적 정체성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차산업 중심에서 고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내포신도시의 주요 정체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도시 주변으로는 여전히 농업이 남아있어 첨단산업과 농업이 혼재된 독특한 산업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도(都)·농(農) 통합적 지역 정체성은 내포신도시의 산업적 지역 정체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 역시 산업적 정체성이

표 4. 내포신도시의 4가지 지역 정체성

역사·문화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와 교류하는 관문지역의 역할을 수행 ■ 다양한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는 개방성, 다양성이 있는 지역
지리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산, 구릉이 적절히 섞여 있는 자연지리적 여건 ■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배산임수지역에 물이 궁수로 이룬 길지 ■ 바닷가의 명당인 포구를 이룬 지역 ■ 인간이 거주하기에 탁월한 정주 환경을 가진 지역
경관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농촌 경관에서 도시적 경관으로의 변화 ■ 녹지공간 조성, 인근 농촌지역과의 조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경관이 혼재하는 지역
산업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로 빠른 변화 ■ 대학, 산업시설, 행정타운이 집적한 첨단 산업지역 ■ 농촌과 도시의 산업구조를 모두 가진 도농통합적 지역 정체성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산업적 정체성은 과거의 지역 정체성과 미래 나타날 지역 정체성이 혼재된 복합적인 지역 정체성으로 내포지역 내에서도 내포신도시만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내포지역의 정체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는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포구가 발달하기 유리한 지리적 환경으로 외부와 교류하는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개방성, 다양성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다, 산, 구릉이 적절히 섞여 있어 거주하기 좋고 농업에 유리한 지역으로 탁월한 정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지리적 명당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내포신도시 건설 이후에는 전형적인 농촌 경관에서 도시경관으로 탈바꿈하며 기존의 물리적 경관이 사라졌지만, 녹지공간 조성 및 인근 농촌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경관이 만들어졌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농업 중심에서 행정,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였고, 첨단산업 유치를 시도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대학, 산업, 행정이 한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지역으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개발된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신도시가 건설된 내포지역은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통칭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중심지는 현재 내포신도시

가 건설된 지역 일대였으며, 신도시 건설 이후 그 중심지가 확고해져 행정기능을 통해 충청남도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충청남도의 중심지역의 지역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내포지역은 갯벌과 포구의 발달로 수운교통이 발달했으며 외부와의 연계가 활발하여 개방성과 다양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산, 바다, 평탄한 구릉지가 골고루 분포하여 정주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내포지역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포신도시 개발 이후 물리적 경관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로 새로운 경관적 정체성과 산업적 정체성이 나타났다. 내포신도시 개발지는 농업이 우세한 지역으로 기존 농업과 관련된 경관을 보여 왔지만, 신도시 개발을 통해 현대적 도시로의 물리적 경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산업구조 역시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는 내포신도시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암시하며 내포신도시만의 독특한 지역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내포신도시에 대한 지역 정체성은 내포지역으로부터 도출된 과거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어 신도시 개발 이후 과연 내포지역의 문화·역사적 정체성과 지리적 정체성이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경관적 정체성과 산업적 정체성은 앞으로 내포지역 중에서도 내포신도시만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내포신도시 개발 완료 이후 지속

적으로 변화과정을 거듭하며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포신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 계기석·천현숙, 2001, 「국토연구원 보고서 2001-19」지방화 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2004, “신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유형 -다양하게 발표하는 신도시, 어떻게 불러야 하나,” 국토정책 Brief, 64, 1-6.
- 김교남, 2014,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제외지역의 자가변동추세 분석 -내포신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원·김덕준·김양식·최승호·최용환, 2011,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2011.12.))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정체성을 중심으로, 청주: 충북연구원.
-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김형선, 2008, 「신도시 개발론, 서울: 부연사.
- 박철희, 2014,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충남리포트, 123, 1-13.
- 박철희·권영현·김경태, 2013,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전략과제 본보고서(2013.12.10.)내포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역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박철희·오용준·김희영, 2012,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2012.03.30.)내포신도시 정체성 제고 및 차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배순석·김현식·박상우·김경석·김덕례·최희철, 2000, 「(국토연구원 보고서 2000-54)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안양: 국토연구원.
- 설기환·박명혜·유석호, 2016, “지역신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 조기확보를 위한 축제의 역할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내포신도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411-420.
- 성시진, 2013,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성장변화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혜진, 2017, “한한령(限韓令) 이후 명동의 다층적 장소정체성에 기반한 장소마케팅 필요성,” 한국지리학회지, 6(2), 255-274.
- 손순금, 2007, “충남 신도시 개발방향” 열린충남, 40, 72-93.
- 오용준, 2013,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2013.10.))내포시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오용준·윤갑식, 2013,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106-122.
- 이경주·임준홍, 2014,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이 충청권 지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나리오 기반의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3(2), 197-225.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역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익성 역, 2006, 「택리지, 서울: 을유문화사(李重煥, 1751, 『擇里志』).
- 이재필, 2016,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 2016-13)대구 지역 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임병조, 2009a,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투영된 ‘내포’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임병조, 2009b, “근대화 시기 전통지역의 변화: 내포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문화역사지리, 21(2), 151-169.
- 임병조, 2009c, “문화권으로서 내포의 상징경관” 문화역사지리, 21(3), 176-184.
- 임병조, 2010, 「지역정체성과 제도화,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모색: 내포지역 연구, 파주: 한울.
- 임준홍, 2014,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이동 성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5), 179-200.
- 전종환, 2003, “내포지역 海灣開拓의 전개와 景觀變化의 사회적 주체 -조선후기~1960년대 가로림만 일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8(2), 206-223.
- 정공철, 2018, “인구 및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내포신도시 주택소요량 추정”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오, 2013,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

성-내포신도시 조성 전망과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 89-112.

정환용, 2006, 「(제3판)도시계획학원론」, 서울: 박영사.

조명래, 1996, “지역 정체성과 지역 운동” 공간과 사회, 7, 91-108.

조일환, 2013,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97-711.

최원희, 2016, “전통적 촌락지역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홍성군 결성면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5(2), 155-180.

최원희, 2017,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6(2), 215-253.

충청남도, 2007, 「(2007.01.)도청이전 신도시 풍수자문 주요 내용」, 대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5, 「(2015.04.)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변경) 최종보고서」, 홍성: 충청남도.

충청남도, 2019, 「(2019.12.)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수정) 최종보고서」, 홍성: 충청남도.

세계일보, 2009년 11월 24일자, “백제역사도시 조성에 1조 3000억 투입”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22

예산군 통계연보, https://www.yesan.go.kr/prog/eBook/stat/stat/sub03_01/list.do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http://naepo.chungnam.go.kr>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홍성군 통계연보, http://www.hongseong.go.kr/cop/bbs/BBSMSTR_00000000641/selectBoardList.do

교신 : 안재섭,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sa@dongguk.edu)

Correspondence : Jaeseob Ahn, 04620, 30 Pildong-ro 1 gil, Jung-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jsa@dongguk.edu)

투고접수일: 2020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4일

